

6장: 구세주들과 세상의 그리스도

A. 주제

하느님의 강이 흐르면서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. 또 다시.

세상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: 사람들은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, 거듭 다시 정의 - 달라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:평형의 깨어짐

구세주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던 시대 -> 구세주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, 그것도 여럿이나 -> 예수가 구세주

B. 왜?

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.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세상.

C. 어떻게?

*고대의 인간 이해:사람들은 오직 신들의 형상을 딴 진흙- 영원한 죽음이 인간의 운명-구세주의 역할 job description이 없었다-이 세상은 길을 잃지도 않았고 구원할 필요도 없었다-구원할 영혼이 없었다- 우리 하느님 최고!

족장들의 전사 이스라엘 하느님-> 그리스 철학의 모나드

*인간의 구세주들로서의 통치자들 등장

-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해지다.

-영망진창->질서: 군주들의 의무, 승리한 군주들:그들 사회의 구세주

-이스라엘 추방의 재앙/국가회복의 희망 ->본래의 선한 세상의 종말

*조로아스터교:오염된 세상->우주의 질서와 종말을 필요로 하게 되다.

‘불붙는 지옥’:이스라엘의 언어가 우주론적 종말론의 성격을

*그리스 철학:피조물-신의 본성에서 벗어나 있다. 신의 바깥에.

그리스 과학-옛 문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과학적 발견-신들에 대한 옛 개념을 폭발시키다.

*영지주의:세상은 신의 바깥에서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

조로아스터교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 혼합된 형태:

영혼은 물질적 세계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존재(그리스 철학)

물질적 세계는 악마와 그의 속이고 거짓된 종교에 다스려지고 있다(조로아스터교)

이렇게 혼합된 이원론->기독교의 저변에 깔리다 293쪽

선택받은 사람들:이 세상의 실재가 무엇인가? 누가 다스리는가?를
아는 것-하늘로부터 오는 그노시스=깨달음이 필요
진리(그노시스)로 인도해 줄 구세주를 하느님이 보낼 필요가 있다

*유대인 메시아등과 구원자등

-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천상의 구세주를 찾지 않았다.
영혼의 “구원”을 기다리지 않았다. 모든 것은 “이 생 this life” 안에서
- 기름부은 자 messiah: 대제사장, 왕, 예언자
-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 + 이스라엘 국가 회복의 희망
“사람 모습을 한 이 one like a son of man”

*구세주가 필요하다

- 악마 너 때문에! 신의 세계로부터 온 구세주가 필요
조로아스터교의 선과 악의 원리/종말론에서 최초의 세상 구세주, 우주적
투사 the first savior of the world, a cosmic warrior 모습 등장
- 영지주의자들: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포괄적인 종교적 세계관 확립 309쪽
선택받은 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은 영혼들-영적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
-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종류의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
쾌락과 죄에 눈이 멀고, 종교적 속임수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진리가 필요
곧 위에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하다.

*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예수

- 십자가형을 받은 한 갈릴리인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, 온 세상의 구세주
유대인들: 세상의 지배자 ruler of the world
그리스도교인들:세상의 구세주 Savior of the world
- 예수의 우주관:이원론
- “세상의 통치자” 악마가 다스리는 영적 시스템으로서의 “ 이 세상”은
누구든지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
- 인간들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
- 예수는 악마의 ‘세상’밖으로부터, 그를 대적하고 그의 집을 약탈하기 위해
구세주의 자격으로 왔다.
- “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 the Savior of the world” (요한 4:42)

생각해 보기

1.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 곳인가?
그렇다면 저 세상은 무엇인가? 단속적 평형설을 적용해 보며
2. 그리스도와 구세주는 같은 말로 쓸 수 있는가?